



## 전북도 자원봉사 'ON' 페스티벌 추진

(사)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 이하 센터)는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면활동이 불가피해 위축돼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집에서도 활동 가능한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으로 2021 전북도 자원봉사 온(On) 페스티벌'을 추진했다.

'우리, 비대면 자원봉사로 함께해요'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번 페스티벌은 도내 청소년 선착순 300명을 모집해 물품제작 키트 2종을 각 가정으로 택배를 통해 발송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작 영상을 참고해 제작했다.

구성된 키트는 LED 압박 스탠드 조명과 환경보호를 위한 세로웨이스트 고체자연' 만들기로 구성됐다.

제작된 물품은 도와 시·군 15개 자원봉사센터에 반납해 자원봉사 실적 인정 및 청소년 쉼터를 통해 도내 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

센터는 다양한 비대면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인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2회 더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청소년 자원봉사에 빛을 밝혀, 도내 청소년들의 긍정적 가치관 확립과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결손 치유

## 전북교총, 해피북과 협약 체결… 도서 보급 공동 노력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이기종)는 지난달 30일 해피북(대표 김은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및 책꾸러미 지원사업의 목적으로 맞는 도서 보급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



각 업무제휴를 강화함으로써 ▲교사·학생·학부모간 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책꾸러미 보급 학교 사회적 배려 학생들에게 교과연계 도서 기부 ▲도서 신간 지역 학교 도서관에 청소년을 위한 도서전집세트 기증 ▲

기타 양 기관의 협력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기종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위축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결손을 치유하고 책을 통해 아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면서 "인성 발달은 물론 교육공동체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서로 간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 나가자"고 말했다.

김은영 대표는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종류의 책을 간편하게 구매하는 전자(SNS) 프로그램을 통해 더广泛的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면서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책 기부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교총에서 이기종 회장을 비롯해 오한섭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해피북에서는 김은영 대표와 노승주 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로펌 찾아 법조분야 체험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학부장 강문경)가 학생들의 실무경험 체득 및 공공부문 법조 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달 29일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섭)와 공동으로 로펌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진출을 준비하는 공공인재학부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지침 준수 차원에서 소수 인원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공인재학부 학생들은 '법률사무소 신세계', '법률사무소 한서', '법률사무소 승소' 등을 찾아 변호사들을 직접 만나 로펌에서 하는 다양한 업무에 대해 경험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조로 씨는 "전북지방변호사회 관과 법률사무소를 찾아 변호사들과 소통하며 값진 경험을 했다"며 "이번 로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로스쿨 입시뿐만 아니라 막연하게 생각했던 진학 이후 법조인으로서의 모습과 청사진을 명확히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돼 뿐만 아니라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공인재학부는 법조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해 김선(12), 박종선(13), 오경호(14), 이승윤(15), 한병국(16), 오수지(17), 이해수(17) 학생 등 7명의 로스쿨 진학자를 배출했다. /장은성 기자

## '진안홍삼 우수성 입증' 박충범 홍삼연구소장 퇴임

(재) 진안홍삼연구소 제5대 박충범 연구소장이 2019년 9월 취임 후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퇴임식을 가졌다.

퇴임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재) 진안홍삼연구소에서 연구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하였다.

박충범 연구소장은

은 농학박사로서 그동안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장, (사)한국약용작물학회 회장을 역임한 우리나라 인·홍삼 분야의 거목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박충범 연구소장은

진안홍삼·약초의 기능성과 우수성을

실현 연구 사업과 제품개발은 물론 세계 최고의 홍삼 특성화 연구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험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원 곳을 밀한다.

이번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카페 오늘'

은 도지사 표창 수여와 함께 향후 2년간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 교육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순창=이양원 기자



또한 영국 환경청이 주관하는 국제시험분석숙련도 평가(FAPAS)에서 2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농식품부에서 수주한 흑삼 안전·안정 생산 표준화 사업을 통해 흑삼의 생산공정을 단축화하고 벤조피렌 기준을 낮출 수 있는 기준 표준화를 이뤄냈으며, "진안홍삼"이 지역 홍삼산업에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브랜드 개발 노력을 계속해왔다.

박충범 연구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연구소를 떠나도 진안홍삼의 우수성과 진안홍삼산업 발전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6대 (재) 진안홍삼연구소 연구소장은 현재 공개 모집 중에 있으며, 11월 취임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 백운면, '착한가게' 2호 현판식

진안군 백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희곤, 이하 협의체)는 지속적 기부와 나눔을 가져온 미영유봉(대표 곽상조)을 '착한가게' 2호점으로 선정하고 지난 30일 현판을 전달했다.

진안군 백운면 미영유봉시장에서 미영유봉을 운영하는 곽씨 부부는 협의체의 마을복지 사업을 후원하는 부부 심마녀(매년 10만 원 이상 협의체에 기부하는 사람)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올해 미른멸치 60박스를 2차례에 나누어 저소득층에 지원했다.

특히 미른멸치를 매년 2차례씩 지속 후원하기로 약정했고, 협의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나눔 문화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착한가게'에도 동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순창소방서, '카페 오늘'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지난 30일 '카페 오늘(순창읍 경천1길 34)'을 2021년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최근 3년간 소방·건축·가스 등 관련 법령에 위반행위가 없고 화재발생 시설이 없으며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에 모범을 보인 업소 중 소방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곳을 말한다.

이번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카페 오늘'은 도지사 표창 수여와 함께 향후 2년간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 교육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장수군 곤충생산자단체, 도청 일원서 식용곤충 판촉행사 열어

장수군 곤충생산자단체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29일간 전북도청 1층에서 '장수군 식용곤충 판촉행사'를 펼쳤다.

이번 판촉행사는 장수군 곤충생산자단체가 직접 개발한 굽벵이 분말이 함유된 '장수구미' 곤충젤리를 선보였으며, 곤충 원료를 이용한 꽃벵이 환·분말 및 건조고소에 등도 시중 판매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다.

곤충은 안정적인 단백질 공급원이자 건강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식으로 장수군에서는 미래먹거리 산업의 일환으로 곤충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곤충은 안정적인 단백질 공급원이자 건강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식으로 장수군에서는 미래먹거리 산업의 일환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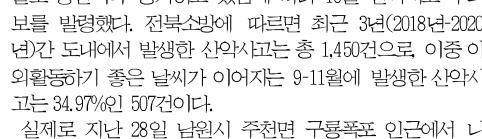
곤충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번 식용곤충 판촉행사에서는 SNS 홍보 이벤트를 통해 식용곤충 제품 구매자를 청내 직원 및 민원인들에게 홍보했으며 이를 통해 곤충 제품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및 제품 홍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정성희 장수군 곤충생산자단체 대표는 "코로나19로 피로감이 누적된 도민들이 곤충 제품으로 조금이나마 피로감을 해소하면서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수군 곤충 제품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 안성면 농촌지도자회, '자원봉사' 활동 눈길

무주군 안성면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지난 30일 깨끗한 농촌 살기 좋은 무주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관심을 끌었다.

안성면 농촌지도자 7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바쁜 영농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부터 모아둔 영농폐기물과 농경지와 생활주변에 버려진 농약병·병기류 등 악기류 분량을 수거하는 등 자연환경 보전에 구슬땀을 흘렸다.

공원규 회장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도 우리 농업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而已. 후대에 안전한 환경과 건강한 땅을 물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남원시, 점자·음성 민원안내시스템 체험의 날 운영

남원시는 지난달 28일, 시각장애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점자·음성 민원안내시스템 체험의 날을 운영했다.

점자·음성 민원안내시스템은 시·청각 장애인에게 디지털 점자와 음성으로 부서 위치 및 민원안내, 시정을 홍보하는 무인기계(키오스크)로 지난 6월 30일 전북지역 최초로 민원실에 설치되었다.

점자·음성 민원안내시스템은 시·청각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행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터치스크린 방식의 모니터, 디지털 점자 모듈과 음성서비스를 지원하며, 부서별 업무내용과 청사 시설안내,

시정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3D 입체화면으로 한눈에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화면 확대·축소 기능으로 노인 및 저시력자의 불편도 해소하고 활용에 이용 민원인을 위한 자동 높낮이 조절 기능도 갖추었다.

이날 체험을 위해 민원실을 방문한 10여명의 시각장애인 연합회 회원은 디지털 점자 모듈을 직접 만져보고 부서

길 안내를 체험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설치된 점자모듈로 직접 민원 발급을 하며 점자교육과 행정체험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저소득층 아동 후원 물품 전달

임실군 드림스타트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 15가구에 생필품 및 식료품으로 구성된 구리미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후원 물품은 굿네이버스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후원하였으며 누룽지·참기름·죽·삼계탕 등 다양한 식료품과 아동을 위한 문구 세트·놀이용품 등으로 구성됐다.

전달받은 물품은 통합사례관리사들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으며, 안부를 묻고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심민군수는 "지역사회에 소외된 계층에게 물품을 후원해준 굿네이버스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진안군, 농기계 사고예방 반사스티커 부착 실시

진안군은 지난 3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국전력공사 진안지사와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반사스티커 부착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진안군 농촌 고령화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및 아간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농업기계 사용을 위해 추진됐다.

군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작한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반사스티커 500부를 전달받아 이를 농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보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순회 수리교육을 통해 스티커를 배부하고, 부착 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전동카 등이다. /진안=우태민 기자